



Korea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이제는 경제의 시간

WEF Issue & Insight

2025년 4월 16일, WEF 4차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센터 웹사이트 보기](#)

유럽의 관세 전쟁 대응 전략... '보복과 협상의 균형' (Europe just might be 'uniquely well positioned' to manage a tariff war)

- EU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모두 고려한 정교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잠정 유예된 '해방의 날' 관세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 장벽에 대해서 보복과 협상을 병행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손익 계산을 넘어 국제 질서 속 자율성과 입지를 지키기 위한 유럽의 외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하여 2025년 4월 11일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 것입니다.



한때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단어는 유럽과 미국의 **돈독한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미국에 **5천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 자동차, 와인** 등을 수출했지만 관세나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시장 접근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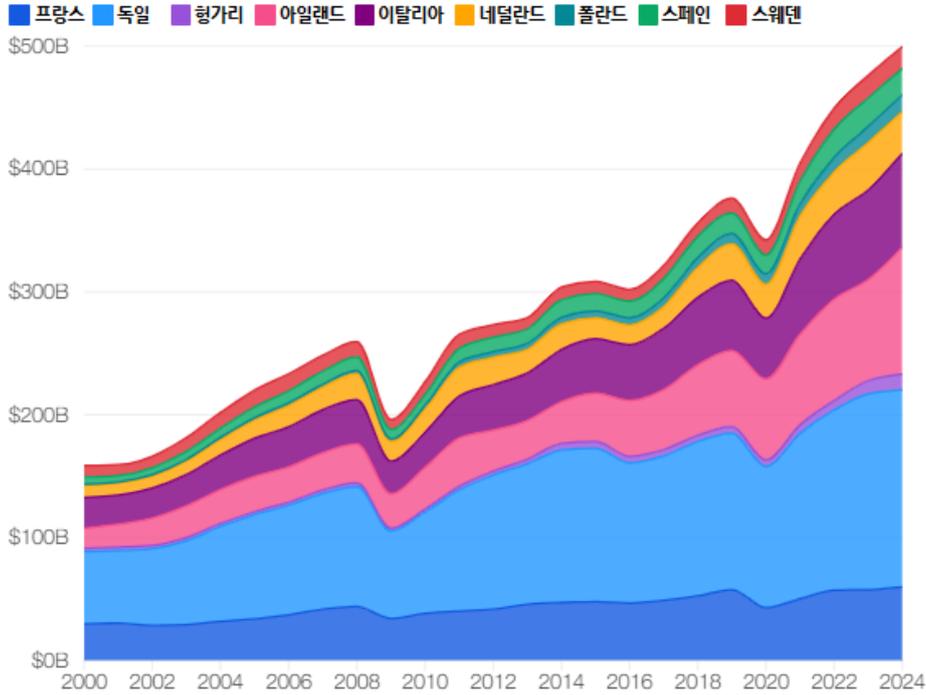
미국은 최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앞세워 주요 교역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선언했고 EU에는 **최대 20%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이 조치는 **90일간 그 시행이 유예**됐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게다가 EU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는 경제 논리는 물론 정치적 현실과 전략적 유연성을 모두 고려한 **정교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복 조치를 준비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이 복합적인 접근은 보다 **안정된 미래**를 바라보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유럽 국가별 수입 현황

WORLD
ECONOMIC
FORUM



출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민첩하지만 절제된 대응: 관세 전쟁에서 드러난 EU의 전략

EU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요트, 닭고기 등 다양한 미국산 제품을 겨냥한 보복 관세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버번위스키는 목록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유럽의 와인·주류 수출 산업이 미국의 추가 보복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조정입니다. 나아가 EU는 이 보복 조치들조차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EU가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외교적 유연성과 산업별 피해 최소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도적 민첩성: EU의 신속하고 절제된 대응력

EU가 복잡하고 민감한 통상 갈등에 이처럼 침착하고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독특한 제도적 기반 덕분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유럽·유라시아 담당 책임자인 '앤드류 카루아나 갈리치아(Andrew Caruana Galizia)'는 "EU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데 있어 유일무이할 만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EU는 전체 블록을 대표해 통일된 입장으로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 관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없이도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무역 분쟁과 같은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해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며, EU의 제도적 경쟁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략의 다변화: 미국 의존을 줄이기 위한 '중국+인도' 카드

EU는 미국과의 마찰이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외 시장의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EU 집행위원장이 인도를 방문했고 이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며 7월에는 **베이징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한 EU-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갈등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의 이탈이 초래할 손실을 다른 시장으로 완전히 메우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U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무역이 지키는 자존심과 정체성

EU는 2023년 기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2,3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에 기반한 관세 부과는 공급망 현실이나 조세 구조(VAT 포함) 등 복합적 요소를 무시한 단순한 계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부가가치세를 관세 산정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EU는 이러한 경제적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가 '피해를 더 키우는 행위'라며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EU 입장에서는 경제 논리를 넘어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최근 인터뷰에서 보복 관세는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U의 대응 역시 단순한 손익계산이 아니라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국가적 소속감'이라는 개념이 처음 형성된 지역이며 미국과의 무역 충돌도 낯선 일이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산 저가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며 촉발된 '유럽 곡물 침공' 당시에도 유럽 각국은 관세를 통해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강대국에 의해 강제로 추진된 정치적 경제 정책이 가져온 상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서 시행한 경제 체제 개편은 수십 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EU가 무역 문제를 단순한 통계나 이익 계산의 문제로 보지 않는 근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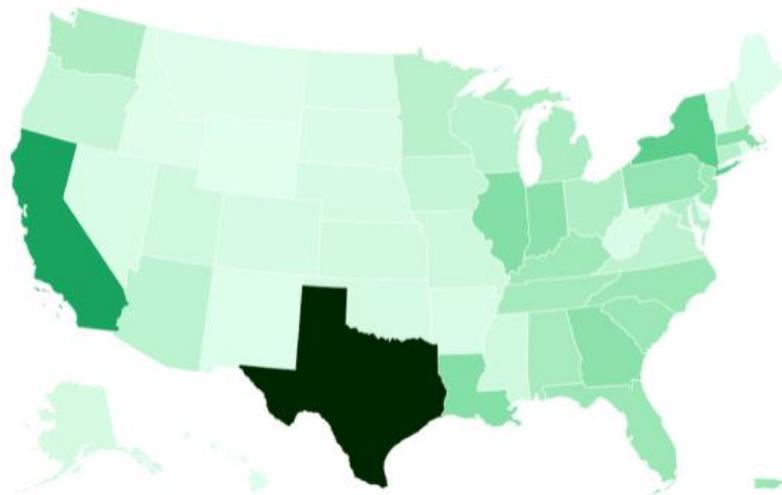
불확실한 미래 속 질서 재편의 시험대

EU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 엄격한 국가채무 규정을 완화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미국발 관세 위협이 고조되면서 다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내부 개혁이 외부의 통상 압력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EU와 상품 무역으로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 수 (2021년 기준 주 별 일자리 수치)



210 200,346



출처: 유럽 위원회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EU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생산시설 이전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현실적 대응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다림과 협상, 유럽식 전략의 정수

EU는 지금도 경제적 피해를 견디며 중장기적 대응 조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입지 확보를 위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국의 [중간선거\(2026\)](#), [대선\(2028\)](#)은 EU의 '기다림과 협상' 전략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그 시기는 마침 EU가 투자 중인 미국 내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시기와 겹칩니다. [중대한 사안](#)이 늘 그렇듯, EU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간의 [일정 수준 이상의 결속력](#)도 요구됩니다.

전세계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EU의 선택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EF 해당 사이트 및 관련 동영상 보기](#)